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4) : 617~632,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4) : 617~632,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4.617>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Effect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Father-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on Their Leadership

Young Ae Jang[†]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father-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on their leadership. A total of 197 children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fa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parenting behavior index, a child-rearing involvement inventory, a father-child communication inventory, and a children's leadership index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t-test, a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leadership according to the fa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the father's warmth/acceptance, the father's family activity involvement, and open/problematic communication between the father and the child. The child's age, the fa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the father's warmth/acceptance, open communic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s leader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hild's leadership may be strengthened if the father is warmer and more accepting and has open communication with the child.

Key words: children's leadership, paternal parenting behavior, child-rearing involvement, father-child communication

접수일: 2015년 6월 22일 심사일: 2015년 8월 3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3일

[†]Corresponding Author: Young Ae Jang Tel: +82-32-835-8254 E-mail: chae@i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표면적인 변화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책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통솔자이자 가장으로서 권위와 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상이, 자녀 출산 전부터 부부가 역할을 공유하고 동등한 부모 역할을 하는 아버지로 인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양육에 적극 참여 하는 현대적 아버지의 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가족 부양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던 전통적인 역할 분담도 어머니의 취업 증가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아버지도 양육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Choi 1993; Byun 2004; Kim 2007; Song 2009).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아동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 발달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ung 2005; Kim 2009).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체감 형성과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등 여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 조직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리더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능력으로 현재의 사회에 적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회적 역할을 키워 나감에 필요한 기술로서,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이다(Kim 2006b).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정의 리더인 가장, 학교의 리더인 교사, 사회의 리더인 어른세대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집단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리더십이 지도자에게 국한된 능력 및 용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개인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이 지

도자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리더십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성인들에게 요청되는 능력 및 기술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선천적인 요소로서 특정한 인물만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대의 리더십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특정인만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존재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자 기술로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맺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능력이다. 즉, 오늘날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을 갖추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사람의 능력으로 그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Lee 2005). 이러한 리더십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발달 과업이고, 단순히 성인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갖출 수 있는 요소가 아님을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리더십의 기초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균형 잡힌 리더십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은 연구주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학습을 해나가며, 리더로서 역할수행을 해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직장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등을 리더십 기술로 보고 있다(Seevers & Dormody 1995; Wingenbach 1995; Morris 1996; Choi 2001; Park 2002b). 이중 커뮤니케이션기술은 감정표현, 타인의 말 경청, 명확한 자기주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의사결정기술은 요구결정, 목표결정, 우선순위결정, 대안선택, 대안고려 등을 포함하며, 인간관계기술은 진실한 마음, 타인에의 호의, 타인의 가치인정,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제치 있는 행동, 타인과의 화합, 좋은 매너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능력기술은 효과적인 정보사용, 학습태세,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사고를 말하고, 자기이해기술은 긍정적 자아개념, 책임 있는 태도, 친근한 성품, 실수 수습 능력, 융통성 발휘와 관련 있으며, 그룹활동기술은 구

성원에게 책임 위임, 집단 성원의 요구 고려, 집단 성원의 요구 수용, 집단 분위기 조성, 변화 수용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한다(Park 2002b).

이와 같은 리더십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적 요인,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사회생활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태어나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장, 발달하게 되므로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자아를 보호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Park 2001).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도자이며 교육자이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나름대로 독특한 양육방식으로 가르치며 지도하고 있다(Park 2002a). 따라서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들은 자녀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양육 관련 변인들은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Lee 200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과 리더십의 관계를 연구했으며(Na 2006; Lee & Lee 2009; Shin 2011; Shin 2013) 아버지 양육 관련 변인과 리더십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과 아동의 리더십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주로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이중 한 가지 변인과 아동 리더십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과 아동의 리더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행동방식을 통칭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Kim 2004).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리더십 연구는 대부

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리더십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im(2010)은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을 연구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고, Lee & Lee(2009)는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Na(2006)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고, 거부적 태도는 부적의 상관이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Park(2008)은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셀프 리더십은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부모의 거부적 태도와는 부적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유아의 리더십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Lee(2006)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통제적 태도가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며, 유아들이 긍정적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 안에서 적절한 지도와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ang(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율적, 수용적 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의 리더십 기술이 높게 나타났으며, Lim(2006), Kim(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 모두 남녀 학생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200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태도는 자녀의 리더십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리더십과 부적상관을,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Kim(2007)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는데,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셀프 리더십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대인관계 리더십은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상관을,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Kim(2015)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리더십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인 양육참여,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감이 유아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

다. Kim(2013)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리더십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는 자녀가 또래관계에서 보다 또래를 사귀고, 이끌고, 협동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Choi(1993)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가 리더십과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관계를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유능성과 지도력이 높았다고 한다. Ha(2010)는 학령기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을 애정 지향적, 자율 지향적, 성취 지향적, 합리 지향적으로 지각한 여아의 유능성 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자녀의 리더십과 관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머니 보다 적지만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오히려 자녀의 요구에 대해 어머니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인지발달 및 성역할 발달,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Kim & Lee 1998).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와는 다른 독특한 자극을 제공하고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동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참여 변인은 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고, 리더십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직접 다룬 연구는 드물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유아들은 사회적 능력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 Jung(1979)은 아버지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려성,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Byun(2004)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여아 보다는 남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Choi(1995)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인 지도력, 유능성, 불안전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Kim(2009)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 생활지도 참여, 가사활동 참여, 학습지도 참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won(2011)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리더십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유아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에 관계되는 변인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자녀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정생활을 원활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An & Lee 2005). 실제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 & Han(2008)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들은 폐쇄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보다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할 때 청소년들의 리더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들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Barnes & Olson 1982)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Lee(2006)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청소년의 리더십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ng(2012)은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리더십 기술

이 높았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을 사용할 경우 리더십 기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리더십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버지와 자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아동의 리더십 기술과도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리더십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Seo(2009)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리더십이 더 높았고, Kim(2010)도 여아가 남아 보다 친구관계나 사회활동의 리더십이 높음을 보고 했으며, Kwon(2011)도 유아의 리더십이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유의하게 더 높음을 보고했다. Kim(2006a)은 남아가 여아보다 공동체리더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학년에 따라서는 Choi(2001), Park(2002b)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학년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년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Kwon(2011)은 만5세 유아가 만4세 유아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리더십 점수가 높음을 보고했다. 부모 학력에 관한 Park(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인 집단의 자녀들이 고졸 이하 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im(2010), Jang(2012)도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리더십이 높음을 보고 했다. 부모의 월수입과 리더십의 관계를 본 Jin(2008)은 부모의 월수입에 따라 리더십 하위 영역인 친사회적태도, 주도성과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했고, Seo(2009)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리더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hin(2011), Jang(2012)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와 청소년의 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아동의 학년, 성

별, 아버지 학력, 가정 월수입과 리더십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아버지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아동 학년, 성별, 아버지 학력, 월수입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리더십에 관련된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관련 변인과 아동의 리더십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지니고 있는 리더십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시 소재 2개의 초등학교와 Y시 소재 1개의 초등학교 임의로 선정하여 4, 5, 6학년 학생 197명과 그들의 아버지 19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가 97명(4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Child's gender	Male	97	49.2
	Female	100	50.8
Grade	4th	62	31.5
	5th	65	33.0
	6th	70	35.5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7	28.9
	College	40	20.3
	University or more	90	45.7
Family income	Less than KRW 2,000,000	32	16.2
	KRW 2,000,000 to less than KRW 3,000,000	36	18.3
	KRW 3,000,000 to less than KRW 4,000,000	46	23.4
	KRW 4,000,000 or more	83	42.1

여아가 100명(50.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4학년이 62명(31.5%), 5학년이 65명(33%), 6학년이 70명(35.5%)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이 57명(28.9%), 전문대졸이 40명(20.3%), 대졸이상이 90명(45.7%)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2명(16.2%),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36명(18.3%),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46명(23.4%), 400만원 이상이 83명(42.1%)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ark(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정·수용은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등의 부모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거부·제재는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허용·방임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 굴욕형 허용과 무책임, 무관심형 방임 등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아버지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개의 응답 범주에 답하도록 되어

있고,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온정·수용이 0.88, 거부·제재가 0.89, 허용·방임이 0.73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i(1993)가 제작한 아버지 참여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의 4개 하위척도,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평점척도로 아버지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여가활동은 자녀와 함께 나들이, 등산, 외식, 동식물원, 유원지, 놀이터, 영화관 등에 함께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며, 생활지도는 유아가 사회생활을 해나기는데 필요한 기본예절 지도, 언행교정, 일상생활 습관형성 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을 말한다. 가사활동은 식사준비, 설거지, 침구정돈, 집안청소, 장보기 등에 참여하는 활동이며, 학습지도는 자녀의 과제수행 및 준비물 챙기기, 학습에 관련된 지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학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여가활동이 0.90, 생활지도가 0.96, 가사활동이 0.78, 학습지도가 0.74로 나타났다.

3)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의 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Min(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2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상호작용에 억압을 느끼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주제 선택에 조심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진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0.91, 문제형 의사소통이 0.79로 나타났다.

4) 아동의 리더십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Seevers & Dormody(1995), Morris(1996) 등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Choi(2001), Park(2002b)의 연구에서 수정하고 Lee(2006)가 재구성한 것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로 구성된다. 이중 커뮤니케이션기술은 감정표현, 타인의 말 경청, 명확한 자기주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4문항, 의사결정기술은 요구결정, 목표결정, 우선순위결정, 대안선택, 대안고려 등을 포함하는 5문항, 인간관계 기술은 진실한 마음, 타인에의 호의, 타인의 가치인정,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채지 있는 행동, 타인과의 화합, 좋은 매너 등을 포함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습능력기술은 효과적인 정보사용, 학습태세,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사고를 포함하는 4문항, 자기이해기술은 긍정적 자아개념, 책임 있는 태도, 친근

한 성품, 실수 수습 능력, 융통성 발휘와 관련된 5문항, 그룹활동기술은 구성원에게 책임 위임, 집단 성원의 요구 고려, 집단 성원의 요구 수용, 집단 분위기 조성, 변화 수용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하는 3문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는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0.81, 의사결정기술이 0.88, 인간관계기술이 0.86, 학습능력기술이 0.86, 자기이해기술이 0.87, 그룹활동기술이 0.8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1시 소재 2개의 초등학교, Y시 소재 1개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 되었다. 총 4, 5, 6학년 아동 300명과 각 아동의 아버지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여 아버지와 아동의 질문지가 함께 수거된 총 394부(아버지, 아동 각 197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12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 아버지 학력, 월수입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리더십의 하위변인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children’s leadership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Communication skill			Decision-making skill			Relationship skill		
		M	t/F	S	M	t/F	S	M	t/F	S
Child’s gender	Male	13.96	-.700		17.22	-.684		18.43	-.690	
	Female	14.26		17.60	18.80					
Grade	4 th	15.13			18.80			20.53		
	5 th	14.09	.930		17.80	2.295		19.19	5.131	
	6 th	14.01			16.93			17.90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3.38		A	16.28		A	17.70		A
	College	14.13	3.290*	AB	17.92	5.271**	B	18.89	3.591*	AB
	University or more	14.50		B	18.12		B	19.23		B
Family income	Less than KRW 2,000,000	13.54			15.50		A	17.45		
	KRW 2,000,000 to less than KRW 3,000,000	13.48	1.630		17.25	3.154*	B	18.09	2.180	
	KRW 3,000,000 to less than KRW 4,000,000	13.97		17.36	B		18.36			
	KRW 4,000,000 or more	14.60		18.07		B	19.31			

Variable		Learning skill			Self-understanding skill			Group activity skill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Child’s gender	Male	13.43	-.700		17.39	-.767		10.06	-.453		90.50	-.825	
	Female	13.75		17.82	10.22		92.61						
Grade	4 th	15.06			19.00			10.93			94.46		
	5 th	13.97	3.450		18.09	2.649		10.29	1.496		93.56	1.110	
	6 th	13.10			17.05			9.91			90.9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2.53		A	16.74		A	9.5		A	86.14		A
	College	13.35	7.460**	AB	17.46	3.060*	AB	10.17	4.417*	AB	92.42	5.220**	AB
	University or more	14.40		B	18.25		B	10.58		B	95.08		B
Family income	Less than KRW 2,000,000	11.70		A	16.00			8.95		A	83.13		A
	KRW 2,000,000 to less than KRW 3,000,000	13.20	4.689*	B	17.06	2.289		9.90		AB	88.90		AB
	KRW 3,000,000 to less than KRW 4,000,000	13.56		17.06			9.93		AB	90.86		AB	
	KRW 4,000,000 or more	14.30		B	17.65			10.17		B	95.18		B

*p<.05, **p<.01.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학력, 월수입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리더십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 모두 아버지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기술은 전문 대졸과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이

리더십 기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기술, 학습능력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먼저 의사결정 기술과 학습능력 기술은 월수입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집단, 300만원~400만원 미만인 집단, 그리고 400만원 이상인 세집단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활동 기술과 리더십 총점은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의사결정 기술, 학습능력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는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차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인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를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를 기준으로 온정·수용의 하 집단은 19-29점, 중 집단은 30-41점, 상 집단은 42점 이상에 속하며, 허용·방임의 하 집단은 12-20점, 중 집단은 21-25점, 상 집단은 26점 이상에 속한다. 거부·제재의 하 집단은 13-21점, 중 집단은 22-24점, 상 집단은 26점 이상에 속한다. 이들 집단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인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리더십총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이 모두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즉,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은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중 집단과 하 집단보다 상 집단의

Table 3. Differences in children's leadership according to the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skill			Decision-making skill			Relationship skill					
		M	t/F	S	M	t/F	S	M	t/F	S			
Warmth/acceptance	High	15.15		B	18.86		B	19.69		B			
	Middle	13.58	6.005**	A	17.01	7.901**	A	18.51	4.965**	AB			
	Low	13.66		A	16.40		A	17.68		A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High	14.20			17.87			18.83					
	Middle	13.60	2.049		16.96	.912		18.63	.075				
	Low	14.71			17.53			18.59					
Rejection/restriction	High	13.87			16.93			18.73					
	Middle	14.31	.531		17.78	.979		18.50	.097				
	Low	14.37			17.72			18.73					

		Learning skill			Self-understanding skill			Group activity skill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Warmth/acceptance	High	14.92		B	18.96		B	11.27		B	98.95		B
	Middle	13.21	9.023***	A	17.14	6.114**	A	9.65	12.826***	A	89.18	8.998***	A
	Low	12.73		A	16.78		A	9.05		A	86.84		A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High	13.70			17.77			10.32			92.83		
	Middle	13.42	.187		17.42	.173		10.06	.214		90.23	.397	
	Low	13.74			17.78			10.11			92.49		
Rejection/restriction	High	13.29			17.29			10.66			90.19		
	Middle	13.56	.851		17.58	.609		9.86	2.217		91.61	.591	
	Low	14.03			18.06			9.93			93.63		

p<.01, *p<.001.

아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기술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하인 집단보다 상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 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차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를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를 기준으로 여가활동의 하 집단은 24-32점, 중 집단은 33-44점, 상 집단은 45점 이상에 속하며, 생활지도의 하 집단은 14-21점, 중 집단은 22-33점, 상 집단은 34점 이상에 속한다. 가사활동의 하 집단은 4-9점, 중 집단은 10-13점, 상 집단은 14점 이상에 속하며, 학습지도의 하 집단은 4-9점, 중 집단은 10-12점, 상 집단은 13점 이상에 속한다. 이들 집단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술, 학습능력 기

Table 4. Differences in children's leadership according to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Communication skill			Decision-making skill			Relationship skill		
		M	t/F	S	M	t/F	S	M	t/F	S
Family activity	High	14.81		B	18.24			19.19		
	Middle	13.96	3.111*	AB	17.22	2.971	18.81		2.509	
	Low	13.48		A	16.55		17.67			
Day-to-day guidance	High	14.59			18.13			18.89		
	Middle	14.18	1.449		17.05	1.763		18.84	.605	
	Low	13.70			17.08			18.23		
Household affairs	High	14.80			17.83			19.21		
	Middle	13.98	2.825		17.18	.748		18.27	1.333	
	Low	13.60			17.11			18.35		
Home education	High	14.95			18.19			18.47		
	Middle	14.33	1.308		18.10	1.601		19.28	.884	
	Low	13.90			17.09			18.40		

		Learning skill			Self-understanding skill			Group activity skill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Family activity	High	14.63		B	18.62		B	10.78		B	96.31		B
	Middle	13.07	6.057**	AB	17.24	3.495*	AB	9.80	3.730*	A	90.21	4.119*	AB
	Low	12.73		A	16.80		A	9.70		A	87.07		A
Day-to-day guidance	High	14.17			18.33			10.60			94.89		
	Middle	13.44	1.660		17.37	1.630		9.93	1.862		90.84	1.643	
	Low	13.18			18.33			9.91			89.40		
Household affairs	High	14.08			18.15			10.36			94.57		
	Middle	13.46	1.248		17.54	1.114		10.24	.664		90.78	1.513	
	Low	13.23			17.13			9.90			89.33		
Home education	High	14.04			18.28			10.71			94.66		
	Middle	14.34	1.772		18.20	1.119		10.43	1.476		94.73	1.424	
	Low	13.32			17.33			9.93			90.07		

*p<.05, **p<.01.

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리더십 총점은 여가활동 참여도가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활동 기술은 여가활동 참여도가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인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참여도에 따라서는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차이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을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를 기준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의 하 집단은 10-24점, 중 집단은 25-34점, 상 집단은 35점 이상에 속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의 하 집단은

12-24점, 중 집단은 25-34점, 상 집단은 35점 이상에 속한다. 이들 집단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형 의사소통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에 따라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에서 문제형 의사소통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

Table 5. Differences in children's leadership according to father-chil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kill			Decision-making skill			Relationship skill		
		M	t/F	S	M	t/F	S	M	t/F	S
Open communication	High	15.60		B	19.33		B	20.81		B
	Middle	13.29	15.371***	A	16.52	15.287***	A	17.76	22.147***	A
	Low	13.14		A	16.21		A	17.07		A
Problematic communication	High	13.28		A	17.25			17.63		A
	Middle	14.26	3.037*	AB	17.19	.519		18.44	4.402*	AB
	Low	14.50		B	17.79			19.52		B

Communication		Learning skill			Self-understanding skill			Group activity skill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Open communication	High	15.12		B	19.47		B	11.27		B	101.75		B
	Middle	13.11	13.277***	A	17.01	13.944***	A	9.55	13.081***	A	87.30	19.935***	A
	Low	12.43		A	16.12		A	9.62		A	84.66		A
Problematic communication	High	13.11			16.76			9.80			87.94		
	Middle	13.50	1.425		17.69	2.100		10.09	1.224		91.20	2.614	
	Low	14.05			18.14			10.46			94.49		

***p<.001.

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변인 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r=0.70$ 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리더십 중 커

Table 6. Effects of variables on children's leadership

	Communication skill			Decision-making skill			Relationship skill		
	B	β	t	B	β	t	B	β	t
Grade	.090	.019	.284	-.376	-.063	-.929	.730	.185	1.924*
Child's gender	.627	.105	1.616	.718	.095	1.442	.787	.106	1.687
Father's education level	.359	.135	1.690	.531	.188	2.249*	.264	.079	1.033
Family income	.095	.060	.757	.165	.083	1.027	.253	.128	1.671
Parenting behavior									
Warmth/acceptance	.022	.004	.036	.045	.006	.056	.698	.192	2.935*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087	.015	.197	.420	-.057	-.739	.852	.117	1.598
Rejection/restriction	-.811	-.101	-1.487	-.259	-.026	-.371	-.450	-.045	-.686
Child-rearing involvement									
Family activity	.184	.045	.345	.508	.098	.744	.072	.014	.112
Day-to-day guidance	-.547	-.123	-.940	-.889	-.158	-1.192	-.740	-.133	-1.058
Household affairs	.249	.078	.932	.058	.014	.170	.493	.123	1.535
Home education	.135	.037	.378	.249	.054	.544	-.268	-.059	-.623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1.806	.506	6.204***	2.050	.455	5.488***	2.369	.532	6.764***
Problematic communication	.286	.066	.868	1.057	.192	2.498*	.281	.052	.708
R ²	.277			.255			.327		
F	5.288***			4.722***			6.703***		

	Learning skill			Self-understanding skill			Group activity skill			Total		
	B	β	t	B	β	t	B	β	t	B	β	t
Grade	-.534	-.106	-1.567	-.626	-.113	-1.574	-.135	-.037	-.532	-2.306	-.091	-1.411
Child's gender	.591	.092	1.407	.644	.091	1.318	.323	.069	1.030	3.640	.112	1.809
Father's education level	.431	.180	1.983*	.448	.142	1.673	.204	.097	1.190	2.298	.157	2.089*
Family income	.209	.123	1.533	.000	.000	.002	.182	.145	1.793	.923	.106	1.416
Parenting behavior												
Warmth/acceptance	.477	.073	.713	1.330	.189	1.978*	.473	.099	.944	2.868	.187	2.882*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109	-.017	-.227	-.177	-.026	-.314	-.199	-.043	-.556	-.077	-.002	-.033
Rejection/restriction	-.614	-.071	-1.044	-.075	-.008	-.108	.003	.000	.006	-2.193	-.050	-.772
Child-rearing involvement												
Family activity	.251	.057	.437	-.323	-.067	-.485	.203	.193	2.472*	.896	.040	.328
Day-to-day guidance	-.411	-.086	-.665	-.368	-.070	-.505	-.689	-.196	-1.467	-3.557	-.147	-1.190
Household affairs	.210	.061	.730	-.186	-.049	-.552	.222	.088	1.030	1.017	.059	.736
Home education	-.208	-.054	-.542	-.044	-.010	-.098	.035	.012	.123***	-.054	-.003	-.029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1.564	.408	4.970***	1.428	.339	3.910***	1.224	.434	5.207***	10.481	.541	6.981***
Problematic communication	.507	.108	1.419	.360	.070	.878	.448	.130	1.681	2.908	.123	1.705
R ²	.273			.195			.241			.359		
F	5.131***			3.305***			4.354***			7.537***		

p<.01, *p<.001.

미디어 기술에는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변인의 설명력은 28% 정도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기술에는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 부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기술에는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개방형 의사소통, 학년이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학습능력 기술에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 학력이 영향을 미쳤고 27%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기이해 기술에는 개방형 의사소통,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쳤고 2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룹활동 기술에는 개방형 의사소통, 여가활동 참여가 영향을 미쳤으며 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리더십 총점에는 개방형 의사소통, 온정·수용 양육행동, 부 학력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은 3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그리고 온정수용 양육행동, 여가활동 참여, 개방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와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97명과 그들의 아버지 197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리더십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학력, 월수입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리더십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 모두 아버지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기술은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의 자녀가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리더십이 높다는 Kwon(1999), Park(2008), Kim (2010), Jang(2012)의 결과와 같은 결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여 리더로서의 역할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기술, 학습능력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의사결정 기술, 학습능력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난다는 Seo(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월수입과 리더십의 관계를 본 Kwon(1999), Jin(2008), Shin(2011), Jang(2012)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이 모두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수용,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가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Walters & Stinnett(1971), Walters & Walters(1980), Ha(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리더십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Lim(2006), Na(2006), Park(2008), Lee & Lee(2009), Shin (2011), Jang(2012), Shin(2013), Kim(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며,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아동의 리더십이 정적상관을 나타냈다는 Ko(2008)의 연구결과,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유능성과 지도력이 높았다는 Choi(1993)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의 따뜻한 자녀를 수용해 주는 태도는 자녀를 거부하고 지나친 제재를 가하거나 허용적이고 방임하는 태도를 갖는 것보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어 자녀가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능동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라 아동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참여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다는 Kwon(2011)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아버지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Lee & Jung(197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한 Byun(2004)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Choi(1995)와 Kim(2009)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도 하위변인인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참여도에 따라서는 아동의 리더십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아버지가 직접 아동의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에 참여하고 집안의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아동의 리더십 발달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놀이기, 등산, 외식, 동·식물원, 놀이터, 영화관 등에 함께 참가하여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 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형일수록 아동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리더십 총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아동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작용에서 교환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보다 긍정적이라는 Barnes & Olson(1982)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아버지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들은 폐쇄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보다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 Jang & Han(2008), Jang(2012)의 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청소년의 리더십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한 Lee(2006)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관계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리더십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리더십 중 커뮤니케이션 기술에는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기술에는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 부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기술에는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개방형 의사소통, 학년이 영향을 미쳤고, 학습능력 기술에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 학력이 영향을 미쳤다. 자기이해 기술에는 개방형 의사소통,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쳤고, 그룹활동 기술에는 개방형 의사소통, 여가활동 참여가 영향을 미쳤다. 리더십 총점에는 개방형 의사소통, 온정·수용 양육행동, 부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그리고 온정·수용 양육행동, 여가활동 참여, 개방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따뜻하게 자녀를 받아주는 수용적인 태도를 기질 때, 자녀와 다양한 여가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할 때 자녀의 리더십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도시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추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리더십 측정 시 자기 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더 정확한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나 교사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이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과 같이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리더십에 관련된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지니고 있는 리더십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리더십은 가정에서의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 이외에도 친구관계,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 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의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비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아동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와 사회에서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기초로 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An HJ, Lee SH(200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parent-child communication. *J Korean Family Welfare Assoc* 10(1), 65-81
- Barnes HL,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 56, 436-447
- Byun SJ(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and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Master Thesis, Myongji University
- Choi KS(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y of child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 of father.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 Choi CW(2001)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HS(1995)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hung JY(2005) The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modes of verbal control of parent, and child's self-control.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Ha SJ(2010)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girls' competence: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ternal motivation as mediator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ang HS, Han JR(2008) The effect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attachment with parents on their leadership life skill. *J Korea Assoc Family Relat* 13(1), 207-226
- Jang YA(2012)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leadership. *J Korea Institute Youth Facility Environment* 10(1), 3-14
- Jin JH(2008)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and preschool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BH(2006a) A study on community leadership of the children in rural areas. Master's Thesis, Konyang

- University
- Kim HJ(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ability.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im HJ(2010) A study on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affecting leader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Mokpo University
- Kim JH(2006b) Children's leadership. Seoul: Kyouyookbook
- Kim JY(200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and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JY(2015)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playfulness, rearing behavior and child's leadership.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 Kim KW, Lee IS(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 Child Stud* 19(2), 65-75
- Kim SH(2004)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similarity of father and mother's attitude and teacher's support on child's behaviors. Master Thesis, Kyungnam University
- Kim SH(2013)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ttitude of children-rearing and playfulness and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 Kim YA(2009)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leadership life skills. Master Thesis, Myongji University
- Ko KH(2008)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behavior and language control type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children's leadership.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won MS(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 Kwon YJ(1999)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y and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CH, Lee CS(2009) Relationships among social competence, temperament, mother's rearing and leadership of preschool children. *J Assoc Future Early Childhood Educ* 16(4), 289-303
- Lee EJ(2005) A study on effect of the children leadership inter personal relation program.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EM(200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s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Lee HJ, Jung YS(1979)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or child-concern and children's personalit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17(2), 83-105
- Lee HJ(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communication level with parent's and leadership life skills. Master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MJ(2001)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school condi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 Medium change factor: "Self-esteem".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Lim JS(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leadership life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Pukyong University
- Min HY(1991) Circumplex mod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Morris JC(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Na MS(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JH(2001)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JH(2002a) The influence of parents' home-education direction and rearing behavior upon psycho-social maturity of their children.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 Park MS(2008) Relations between the self-leadership of young children an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Master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 Park SK(2002b) An analysis of leadership as adolescents' life skill.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 Park YA(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sibling relationship and children's self-esteem.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 Seevers BS, Dormody TJ(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 Agricult Extension* 33(4), 28-35
- Seo KN(2009)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focused on individual variables. Doctoral Thesis, Catholic University
- Shin EJ(2011)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arental beliefs,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and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 Shin SR(2013)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attachment on their children's leadership. Master Thesis, Incheon University
- Song MS(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to the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by the rearing participation of the father.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Walters J, Stinne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 Marriage Family* 11(2), 35-42
- Walters J, Walters LH(1980)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view 1970-1979. *J Marriage Family* 20(3), 78-91
- Wingenbach GJ(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